

## 2022년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정기회

○ 일시 : 2022년 1월 27일(목요일) 10:00 ~ 12:00

○ 장소 : 전북대학교 진수당 2층 대회의실

○ 회순

1. 개회 2. 위원장 개회 선언 3. 안건상정 4. 폐회

○ 참석자 : 양병우, 양규혁, 김남수, 박성수, 주상현, 안문석, 김용우, 허연, 유명환, 이현욱 위원

○ 불참자 : 정용채, 홍철운, 황인호, 최옥채, 이민규 위원

○ 상정안건

- 중기재정운용계획안
- 2021회계연도 대학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2회계연도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예산안

간사 : 바쁘신 가운데 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이경환)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요안건은 「중기재정운용계획안」, 「2021회계연도 대학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회계연도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예산안」입니다. 위원장님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진행이 있습니다.

위원장 : 인사말씀  
(양병우)

위원장 : 오늘 재정위원회 회의는 15명 중 총 10명이 참석하여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양병우)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의사 정족수에 달했으므로 성원이 되어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소개가 있습니다. 일반직위원 중 재학생위원 유명환, 이현욱 위원님께서 새로 오셨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 : 인사말씀  
(유명환, 이현욱)

위원장 : 네, 다음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중기재정운용계획안」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양병우) 본 안건에 대하여 학교 측 제안 설명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기획팀장 : 배포된 회의 자료에 의거 「중기재정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함.

(백유선)

위원장 :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 궁금한 사항과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상현) 현재 우리 대학 자체수입이 다른 거점 대학에 비해 굉장히 낮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좋은 대응책과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안건 설명 중 말씀하셨듯이 사업평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엄격한 평가는 쉽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평가를 해서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우리 대학의 가용재원이 부족해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의무지출경비와 가용재원을 구분하여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년, 10년 뒤 가용재원 내용의 변화를 보면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우리 대학 재정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7대 의제 및 14대 실천과제를 만드셨습니다. 한, 두 개 첨가가 되면 어떨까 싶어 말씀드립니다. 최근 핫이슈는 코로나19입니다. 이러한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대학 교육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학령인구가 굉장히 급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굉장히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우리 대학의 대응, 이러한 의제가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7페이지 수입부분에서 21년, 22년 가다가 23년에 정부 이전수입이 좀 줄어요. 왜 줄어드는지 설명이 있다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기획팀장 : 말씀하신 부분들은 ~~지나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용재원 (백유선) 부분은 26, 2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주요사업비 필수사업 부분을 가용재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마침 입학처와 관련된 내용이라 말씀드립니다. 12페이지 상단에 보면 학생정원 및 (양병우) 학생수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대학 및 대학원의 입학정원이 계속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입학처에서는 이 데이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입학정원은 매년 조금씩 편차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채우지 (주상현) 못한 인원은 차차기 연도로 이월이 됩니다. 약간의 변동성이 있는데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정하게 가지는 않고 변동 추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이 부분에 대한 추정이 이뤄져야 재정 문제도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내 (양병우) 담당 교수님이나 전문가에게 맡겨 예측치가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 현실로 나타났을 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정기획팀장 : 보완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유선)

위원 : 입학처에서도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상현)

위원 : 행정에서 장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기준은 잘 모르지만 기업 경영 입장에서 보면 (양규혁) 장기계획을 세울 때 올해와 내년도가 그대로 간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입학 정원이 증가하기 어렵다고 본다면 증가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 유학생에 초점을 맞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학교의 전략을 담은 장기재정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절대적으로 장기재정계획은 인원수 추정입니다. 인원수 추정, 대학원 추세, 단과대학에 (양병우) 대한 추정이 없는 중장기재정계획은 무의미하고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 전체적 큰 틀에서 재정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이 굉장히 적은 (박성수) 예산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라는 것은 다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 와중에 대학회계의 세출예산은 줄었느냐하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다는 말이거든요. 앞으로 대학 재정운영에 있어 등록금에 의존을 해서는 안 되고 국가 재원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를 보시면 인적경비 비중이 전남대보다 낮게 나타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학교교육 여건개선 부분이 전남대는 18.4%, 우리 대학은 13.4%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시설 보수 예산을 자체적으로 잡지 않아서 나타날 수 있는 수치입니다. 또한 교육행정일반 비용을 줄여 학교교육여건개선에 투자할 여지가 있다고 평가되었는데, 이는 그만큼 우리 시설이 낙후된 것을 간접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시설보수비를 편성해서 낙후된 시설에 대한 보수 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서 인건비 비중이 50%로 지적됐는데 이는 다른 대학의 평균 수준입니다. 그런데 유독 부산대가 38.8%로 낮은 수준입니다. 다른 국립대는 비슷한 수준인데 왜 부산대만 특별히 낮은지, 기획과에서 부산대를 벤치마킹해서 다음 회의 때 보고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 네, 거점국립대 2020년 세입·세출을 이렇게 단순히 비교해놓으면 차이의 원인이 (양병우)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등록금, 학생수, 인건비 등 이러한 중요한 항목들에 대해 일인당 기준으로 제시를 해주어야 비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 34페이지에 보시면 7대 의제 및 14대 실천과제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김용우) 있듯이 연도별 내에서 구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천과제를 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어느 부서, 누구라도 시급성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기획팀장 : 네, 알겠습니다.

(백유선)

위원장 : 지금의 중기재정운용계획은 과거의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하신  
(양병우) 내용 중 7가지 의제 실천이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있는지는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이 많지만 특히 코로나 이후 정보시스템 문제에 있어 우리 대학이 굉장히  
뒤처져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과거에 교수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 강조를  
많이 하고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심각하게 장애를  
겪었거든요. 이렇듯 앞으로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예산이  
반영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기재정운용계획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정확히 적시해줬으면 하는 기대감에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 : 저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안문석) 교육부에서 받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신청해서 받고 그만큼 성과를  
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 이러한 사업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혁신지원사업 같은 경우 단과대 별로 배분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배분된 만큼 성과를 내느냐, 학교 발전 방향에 맞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획처에서 진행상황을 정리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학교의 발전 방향과 결부해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현재 우리가 재정적인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양병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대표적인 예로 기숙사가 겨우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감당되어야 하는지 등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료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완점들을 기획처에서 다음 재정위원회에 추가 보고한다는  
전제하에 찬성, 즉 조건부 찬성으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 : 동의합니다.  
(전체)

위원장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전원  
(양병우)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찬성 10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 다음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 대학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을  
(양병우)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학교 측 제안 설명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 배포된 회의 자료에 의거 「2021회계연도 대학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함.  
(김명숙)

위원장 :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양병우)

위원 : 동의합니다.  
(전체)

위원장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전원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찬성 10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예산안」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학교 측 제안 설명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 배포된 회의 자료에 의거 「2022회계연도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함.  
(김명숙)

위원장 :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 총괄적인 국립대학 예산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페이지에 보시다시피 2022회계연도 대학회계 전체예산은 7.5%로 증가하고 있지만 대학자체수입금은 줄고 있습니다. 등록금에 의존해서 재원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일반재정지원이라고 하는 국립대육성사업, 혁신지원사업 두 가지에 의존해서 사실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재원같은 경우 경직성경비를 제외하면 남는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각종 사업들은 국립대육성사업과 혁신지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예산구조를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주요사업으로 편성한 가짓수도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큰 틀에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대학회계 예산은 어찌보면 2년간의 코로나 여파로 인한 덕을 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쓰지 못한 예산을 절약했고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예산 절약입니다. 어느 정도 불용액이 있어야 다시 수입증가로 잡아서 다음 예산에 보탬이 됩니다. 교육과 연구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 네, 별도로 2페이지로 된 2022회계연도 대학회계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이 전체 세출예산을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 3페이지에 대학원 수업료가 1.65% 인상된다고 나옵니다. 학교 등록금은 동결이 되고,  
(이현욱) 물론 국립대학교라 대학원 수업료가 많은 수준은 아니지만 실제로 공부를 원하는 대학원생들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학원 수업료가 인상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 : 대학원 수업료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인상했고 사무국에서는 그 결과를  
(박성수) 받아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보시면 대학원 수업료가 약간 올랐지만 물가상승률도 안되는 수치이고 반값등록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총부담액은 줄어들 것 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대학원까지도 국가장학금 대상이 되어 우리 대학원에 들어오신 분들이 국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 보충해서 설명해 드리면, 대학원 수업료 1.65% 인상한 금액은 1억 8천 정도이고,  
(김명숙) 이번에 장학금으로 편성된 금액은 3억입니다.

위원장 :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 궁금한 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2022회계연도 본예산 총액이 2천9백억,  
(주상현) 기획처의 중기재정계획에서는 3천70억으로 되어있어서 약 백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러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우리 학교 60여 명의 교수님이 참여하는 테니스 모임이 있는데, 매년 전국 교수 테니스대회가 개최되고 우리 대학도 또한 개최하고 출전해서 지자체의 큰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국립대학교의 위상과 명예를 세우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지난 재정위원회 때 본예산에 천만 원 정도를 반영하기로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교수님들, 또 총장님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기로 생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혹시 누락이 됐는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 일단 예산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학회계에서 예산이 확정되어야 예산편성이  
(김명숙) 됩니다. 시간강사 처우개선비나 국립대학시설확충비처럼 추가적으로 배정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예산서상에 확정이 되어야 저희가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니스대회에 관한 것은, 일단 저희는 사업 신청을 받아서 신청 내용을 기획처에 보내는데, 현재 그 사업에 대한 신청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에서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지난 재정위원회 때 추경에 올라와서 논의 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었는데 사업  
(양병우) 신청이 되지 않아서 빠진 것 같습니다. 보전성 항목인데 어떤 처가 됐든 적지 않은 천만 원을 빼서 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 저는 교수님들 테니스 대회인데 왜 학생처에 배정이 되었는지 이해가 잘 안됐습니다.  
(김남수) 직원역량강화와 같은 항목이 적절한 것 같은데 학생처에서는 해당되는 항목이 없었습니다.



위원 : 본예산에서도 재정위원회 권한으로 증액을 할 수 있는데 천만 원 때문에 예산을  
(박성수)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작년처럼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부서로  
배정할지는 내부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 현재 예산과 크게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만, 앞으로의 반영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양규혁) 어제 조교 대표들이 찾아왔습니다. 출산휴가 3개월을 하고 육아휴직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데, 대체인력 투입에 대한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파악해서 예산 증액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 예를 들어서 조교선생님이 육아휴직 3개월을 들어가면 대체를 하지 않고 학과 운영을  
(김용우) 하고 있나요?

위원 : 행정인턴 등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적게 책정되어 있다 보니  
(양규혁) 조교선생님들이 그 예산까지 고려해서 서로 눈치를 보며 못 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자녀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4시에 퇴근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아직 우리는  
그런 준비까지는 안 되어있거든요. 그 외 부분은 교수님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조교를 매년 재임용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점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 일단 모성보호 관련된 비용은 지출되어야 합니다. 적정 추산액을 교무처에서 올리면  
(박성수) 크게 감액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유명호*

위원장 : 고용계약도 1년, 2년 계약해서 10년까지로 되어있습니다. 1년인데 육아휴직을 쓰고 돌아와서  
(양병우) 일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농생대 같은 경우 80퍼센트가  
여성분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고용계약 문제, 육아휴직 관련 예산 문제는 철저히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찬반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편성 책자가 나오기 전에  
예산편성 위원들이 재정위원들에게 설명하는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편성이  
 끝나고 나서 재정위원회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상황이니까 앞으로는 미리  
 회의를 가져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예산에 담기면 학교 발전에 훨씬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 안건에 대해 동의하여 주신다면 거수로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 : 동의합니다.  
(전체)

위원장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전원  
(양병우)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찬성 10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 본 회의를 마치기 전에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행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양병우) 제2항에 의거 회의록 서명을 출석 위원 전원이 하여야 하나 단서조항에 따라 출석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대표로 간(間)서명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회의 때 결정된 바에 따라  
이번 회계연도까지는 주상현, 최옥채, 김지광 위원님이 간(間)서명하시기로 했는데  
임기가 끝난 김지광 위원 대신 새로 오신 유명환 위원님, 불참하신 최옥채 위원님  
대신 김용우 위원님께서 간(間)서명하시는 것이 어떠실까요?

위원 : 동의합니다.

(전체)

위원장 : 이에 주상현, 김용우, 유명환 위원이 간(間)서명하실 대표위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양병우)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022회계연도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정기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 :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정기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

상현

작성일 : 2022. 2. 3.(목)

위원장 : 양 병 우

간 사 : 이 경 환

기 록 자 : 부 찬 미